

한국 농민으로서 삶과 새로운 가치발견



이 원 희 신지식 농업인
충청북도 영동군 학내면

저는 충북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모리마을에서 지금까지 주민등록 한번 옮기지 않고 40여년 동안 농사일만 하고 있는 이원희입니다.

저의 마을은 대진고속도로, 금산IC에서 영동방향으로 10분정도 경부고속도로 옥천 IC에서 30분, 황간 IC에서도 30분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리마을은 농가 경지면적이 0.8ha로 매우 영세한 마을입니다.

저는 농촌종합개발사업 총무, 영동군농업인 정보화연구회장, 전국 새농민회 충북도회장, 한국블루베리협회 부회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책임을 맡으면서 노지포도 3,500평, 벼농사 1,600여평 규모로 농사 짓고 있으며 신지식 농업인에 선정(1999-43)되어 농사에는 박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어려움 없이 농사가 쉽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포도농사의 경험을 배우느라 이웃마을 농가를 방문하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농가보다 더 품질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으나 농사는 역시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질 않았습니다.

포도 묘목을 심은 지 3년, 포도 수확 첫해 농사

경험도 없이 다른 농가의 농사 방법을 따라서 하다 보니 내 땅의 성질도 모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가을에 전혀 수확을 하지 못하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다른 농가에서는 모래가 많이 섞인 땅이라 비료를 많이 줘도 비만 오면 씻겨 내려가 농사가 잘 되었지만 우리 땅은 진흙땅이라 비료 효과가 오래 지속된 까닭에 포도 알이 다 익어서 터져 벌이 날아들고 잎이 노랗게 되어 일찍 낙엽이 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토양검정을 받 필지마다 실시해 질소 비료를 줄이고 가리비료도 토양성질에 맞게 조절해 주어 포도 재배에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문제점 몇 가지 해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 간이 개량 비가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가림을 왜 개량했느냐 하면 비에서 모든 병이 붙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가림의 시초는 저의 고장 학산에서 전명하씨라는 분이 포도를 노지에 심어 재배하면서 포도밭을 지키기 위해 개를 원두막 주변에 매달아 놓았는데 개를 비 맞지 않게 하기 위해 포도 넝쿨 위로 비닐을 덮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비닐

을 덮은 곳이 포도가 더 잘된 것을 알았고, 그 다음해 비가림을 조금 더 늘린 결과 많은 효과가 있어 그 후 전체 농가에 확산되어 비가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농민들이 그렇게 해오기를 약 20여년 처음했던 비가림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짓다보니 한 여름 고온 피해를 받아 잎이 한 가지에 두세 잎씩 기능을 상실하여 포도가 잘 익지도 않고 일찍 낙엽이 되어 병해가 나타나는 것을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영동군농업기술센터에 전태하 소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원인을 분석하여 개량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여섯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만든 시범포가 잘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견학도 오고 연구도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는 한달 동안 우리 개량 간이 비가림과 재래식 비가림의 온도 차이를 저에게 부탁하여 하루에 4차례씩 온도를 측정하게 하였습니다.

양쪽 모두 똑같은 위치에서 온도계를 달고 오전 10시, 12시, 오후 2시, 4시에 온도를 확인하였더니 제일 많은 차이가 난 것이 오후 2시 한여름 개량한 것과 개량하지 않은 포장으로 그 온도 차이가 약 7℃ 정도 날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개량한 곳이 35℃일 때 개량하지 않은 밭은 42℃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는 잎이 제대로 탄소 동화작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여름이 지나고 가을 수확기에 비닐을 씌우는 농가도 있었고 비를 모두 맞아서 잎과 포도알에 노근병 탄저병 등 각종 병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설치한 비가림의 효과를 많이 홍보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호맥 재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밭에 호맥을 심게 된 동기는 포도밭에 제초제를 하지 않는 방법과 퇴비를 사서 쓰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던 차에 전 영동군농업기술센터 전태하 소장의 권유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 77세이신 노모의 반대가 무척 심하였습니다. 포도밭에 풀 한포기도 있어서는 농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어머니께선 포도밭은 풀을 뽑지 않고 제초제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찬성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세대의 농사방법과 현재의 농사방법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얻어 파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호맥재배의 효과를 보면

- 호밀짚이 전체 밭을 덮으니까 풀이 나지 않아 제초제를 하지 않는 효과(제초제 값, 인건비 절약, 토양에 미생물 번식 등의 장점이 있음).
- 유기물 확보, 3년간 계속 파종하면 유기물 함량이 높아진다.(단보당 1,500kg ~2,000kg 경비 절감 : 퇴비, 비료, 농약, 인건비의 장점이 있음)
- 토양개량, 지렁이, 굼벵이 등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친환경적으로 변화하는 장점이 있음)
- 뿌리가 호밀 키만큼 들어가 땅위와 같은 양의 유기물이 있는가 하면 뿌리가 썩어 산소 공급이 원활하다.
- 장마 때 토양 유실이 되지 않고 많은 비가와도 흩이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
- 가뭄이 심해도 호밀이 깊이 덮고 있어 1주일 정도 습을 더 유지할 수 있다.

금년엔 호맥재배보다 인건비가 들지 않는 들묵새를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들묵새는 한번 파종하면 씨가 떨어져 다시 파종하

지 않아도 되며 호밀처럼 베지 않아도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외국 과수원에서는 오래전부터 들묵새를 재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묵새는 가을부터 자라 이듬해 5월초에 고사되어 퇴비화 됩니다.

나는 포도농사를 사람 사는 것과 같이 비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도시 사람들이 공기 좋고 물 맑은 시골을 찾듯이 포도나무도 뿌리를 내려 생명을 유지하는 흙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흙을 좋게 하기 위하여 호밀을 파종하여 유기물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 파종할 당시 1.7%였던 유기물 함량이 지금은 4.3%까지 올려놓아 흙이 좋아져 비료를 적게 써도 양분을 저장하는 힘이 그만큼 좋아졌습니다.

다른 농가의 농사방법을 따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를 재배하려는 땅의 토양성질을 알고 비료와 퇴비를 적당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년 토양검정을 실시 한 후 시비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매년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상 문제가 발생 시 진찰을 받은 후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듯이 토양검정을 받은 후 나의 땅이 건강하면 비료도 정당하게 농약도 알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비료와 퇴비를 더 줄 수 있어도 너무 많이 주면 탈이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소비료의 과용은 토양성질을 악화시키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 좋은 품질의 포도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매년 퇴물이 되는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은 저에게도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모두 경험해 봤을 테지만, 그 작은 예로 가락동으로 포도를 출하 시 처음 몇 상자는 값이 잘 나오다가 차츰 수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갑자기 절반이하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문제가 1년에 3~4차례씩 나타나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날 20,000원 하던 포도 한 상자가 하루사이에 10,000~15,000원으로 푹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양이 출하했을 때 평균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일을 매년 속수무책으로 겪어야 하는가?’ 하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며칠간 많은 고민을 하던 중 농림부에서 농업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준다고 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농사방법 등을 제출해 홈페이지 제작 지원농가로 선정된 1999년, 포도판매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며 운영할 때만 해도 마을이 산골짜기라 초고속 통신망이 보급되지 않아 일반 전화회선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을 할 때면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아 별도로 전화를 설치하기도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다음으로는 위성인터넷을 설치했더니 이 역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시설하청업체가 부도가 나 큰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2년 동안은 기대만큼 홈페이지가 판매에 큰 도움이 되지 못 하였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인터넷 판매가 부진한 이유를 직접 분석해 본 결과 홈페이지 개설만 하면 포도가 저절로 판매 될 것이라는 생각에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깨닫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 '고객이 홈페이지를 찾고 오기 쉽도록 내가 만들어야겠다.'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길었던 사이트 주소를 간단하게 'moripodo.com'으로 바꾸고 인터넷 주소창에 '영동포도'라고 한글로 입력하면 바로 저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포도 중 최상의 것만 선별해서 보내주었으며, 10상자 이상 주문하면 1상자를 무료로 보내주는 혜택도 고객들에게 제공하였고, 주문 시 포도즙 3개를 선물하여 고객들에게 공짜의 기쁨도 주고 간접홍보를 하는 두 가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 외에 포도박스 안에는 친필로 '이 포도와 포도즙은 저와 아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포도, 포도즙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라고 글귀를 적어 복사해 넣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포도라는 것을 각인시켰고, 연말에는 고객 한분 한분께 연하장도 잊지 않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인터넷 직거래 즉,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장점은 아주 많았습니다.

택배료는 5kg에 2,9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가락동에 출하할 때의 상·하차비, 운임, 수수료 등을 합친 가격과 비슷해 전혀 손해가 아니었고, 공산품처럼 값을 정해놓고 다른 인터넷 거래처럼 선입금후 배송을 하게 됨으로써 안정된 가격에 안심하고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택배요금도 군에서 200건에 한하여 50%인 40만원을 보조해 주는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고객 또한 좋은 품질의 포도를 집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어 시간절약의 효과가 있고 경매, 도매 소매 등 각종 복잡한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차츰 주문량이 늘기 시작하여 금년엔 올해 생산량의 80%이상 전자상거래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간혹 있는데, 그 중 가장 잦은 것은 택배 배송 중 포도알이 터져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우체국택배와 계약을 맺어 한 달에 120건 이상 배송을 보내면 포도알이 터져서 소비자의 불만이 있을 때는 전액 배상해 주는 것으로 하여 그 해 일년 동안 5상자의 배상을 받는 등 점차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알이 터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터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고심 끝에 옥천포도시험장과 충북농업기술원을 찾아 소장님과 기술원장님으로부터 터지지 않는 포도 상자를 개발해 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포도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연구해야 한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연구기관에서 1차로 제작한 포도 상자를 사용하다보니 그 개량상자도 조금 미흡하여, 다시 영동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큰 상자 안에 작은 상자 2개를 넣는 방식으로 교정 후 시범 배송한 결과 이제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포도송이가 터지지 않게 소비자들에게 포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자리를 잡다보니 ‘이제 혼자만 포도를 잘 팔아 높은 소득을 올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온종일 작업한 포도를 오후에 집하장으로 내 놓는데 우리 농장의 포도가 생각보다 적게 나가는 날이면 모두 어디에 팔았냐고 물어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주문 들어온 것을 보내고 나머지만 가져 왔다고 하면 나도 컴퓨터 좀 배워 저렇게 판매 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줄 테니 배워보라고 하면 “이 나이에 컴퓨터는 어떻게 배우냐”거나 “얼마나 활용 하겠냐”며 컴퓨터 앞에 앉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3월 정보화 선도자로 선정돼 도지사의 위촉장을 받고 더욱 열심히 다른 농업인들에게도 컴퓨터를 가르치겠다고 다짐을 한 후 정보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영동군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이용, 정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전화나 메일을 통해 문의를 해오는 농업인들이 많았으며, 실제로 36농가에 100회 이상 컴퓨터 기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보화 선도자로 활동을 하던 2003년 여름에는 갑자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전화로 “마을 현황과 정보화 선도자의 활동사항, <디지털 사랑방>을 설치하면 운영할 수 있겠냐?”는 문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초고속 인터넷 설치 여부 등 여러 가지를 물어와 자세히 답변을 했더니 메일로 서류를 보낼 테니 작성해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마을에 초고속통신망이 들어오지 않아 <디지털 사랑방> 신청자격이 안 될 상황에

처해진 것이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이 들어와 있어서 <디지털 사랑방>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서류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속이 탈 지경이 되어도 한국통신에서는 해당지역이 아니라며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하여 한국통신 영동지점에 찾아가 시설운용과장을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그의 답변은 기계실로부터 4km 밖이라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직접 집에 와서 실험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빠른 시일 내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로 혼자서 전화국 기계실로부터 집까지를 재본 결과 4.5km 정도여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구형 컴퓨터는 접속이 잘 안된다는 말에 그때까지 쓰던 컴퓨터를 버리고 펜티엄4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통신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설치가 가능하다는 최종 답을 들을 수 있어 안심하게 됐습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가능한데도 왜 지금까지 불가능지역으로 분류했느냐?”고 물었더니 “한국통신에서는 안전하게 잘 되는 곳만 설치를 해주고 있다”며, “기계실과 거리가 먼 곳에 설치를 할 경우 접속이 끊기거나 속도가 느릴 수 있고 이에 불만이나 불평의 글이 올라오면 평가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꺼리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 집에 한 달 후인 8월말에 개통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음과 아울러 모리마을에 15농가의 초고속통신망의 이용 신청을 받았고, 이후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됐다고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후 한동안 <디지털 사랑방>에 대한 소식이 없어 ‘전국에 다섯 군데를 시범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마 우리 마을에 지원이 되겠는가?’라며 포기를 하고 있

던 중, 3개월쯤 후인 11월경에 우리 마을이 선정됐다는 연락이 왔고 12월 2일 전국의 5군데 중 하나로 <디지털사랑방>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컴퓨터 5대, 프린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등 마을 홈페이지 지원에 이르기까지 총 3,000여만원의 국고가 지원되었고 또 몇 년 전 영동군 과수전산화 품목의 하나로 작목반에 지원됐던 컴퓨터 1대도 옮겨 총 6대를 이용하여 마을주민들이 경로당에 방문, 컴퓨터를 통해 농산물 전자상거래 등을 배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또 한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경로당 할아버지방에 설치하였기에 마을 주민들이 컴퓨터를 배울 때면 할아버지들께서 불편해 함은 물론 컴퓨터를 배우는 이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영동군에 건의를 하였더니 군에서 회관 2층에 20평 규모로 건물을 지어 이제 <디지털사랑방>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리마을 주민들은 수시로 컴퓨터를 배우려고 <디지털사랑방>으로 오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이들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아주머니부터 80세의 노인 회장까지 모두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이들입니다.

영어의 소문자를 몰라 키보드에 있는 대문자로만 사이트나 메일 주소를 써달라는 아주머니들, 어느 정도 타자연습을 해서 이제는 마을 홈페이지를 자주 찾는 마을 분들, 아들, 손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컴퓨터를 배운다고 자랑하며 메일로 손자손녀의 사진을 받아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 역시 처음 컴퓨터를 배울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다녀 배우려고 했

지만 시간이 맞지 않는 것은 물론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쉽게 배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3박4일씩 몇 차례 걸쳐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면 배운 것이 생각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배우겠다고 매일 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가르친 것을 오늘 잊어버리고 또 묻고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사랑방>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잊은 것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배울 수 있고 이러한 가운데 실력이 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한 할아버지는 컴퓨터를 배우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가락동 농산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이 컴퓨터를 배운 것은 이제 겨우 2~3년, 그러나 마을회관에서는 화투는 없어지고 컴퓨터 이야기만 나누고 있고 컴퓨터가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어 모리마을에 또 다른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판매방법을 개선하고 배송에서도 많은 변화를 주어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었으나, 그래도 우리나라의 포도농사가 FTA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새로운 농가 수입을 위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블루베리를 2003년도에 심었습니다.

재배방법, 판매, 유통 등 아무런 지식도 없이 포도 나무를 일부 베고 시작한지 몇 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블루베리 재배에 대하여 문의 하거나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루베리는 오래전부터 다른 나라에서는 재배

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토양산도가 맞지 않아 재배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피트모스를 이용하여 산도를 조절하니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저는 금년에 3년차 수확을 했는데 단보 당 1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소비 역시 많아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격 또한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수출은 물론 농가 소득 또한 타 작물보다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이 비가림 개량, 호맥재배에서 들묵새 재배 블루베리재배로, 판매방법을 전자상거래로, 또한 마을에 디지털사랑방, 농촌종합개발사업유치, 전통테마마을 선정 등으로 농가소득은 물론 마을주민들의 활력 넘치는 모습은 다른 마을에서 찾기 힘든 마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금년엔 전국에서 년 1만명 이상 찾아와 농촌의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마을 환경도 이제 제법 잘 정비되고 도시민들이 편히 쉬어갈수 있는 황토민박집도 6채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현대건설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농산물이 없어서 못파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마을로 귀농한 가족이 다섯 호가 되어 마을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엔 농림부에서 주최한 도농교류 페스티벌에도 참가하여(2박3일) 마을홍보에도 많은 효과를 보고 6월엔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우리 마을을 방문하여 농민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해를 한국 신지식농업인회 정운천 전회장이 쓴 “거북선농업”이란 책에서 우리농업의 현실과 거북선에 비교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잠시 소개 드리자면,

과연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잘 싸워 무찔렀어도 거북선이 만들어 졌을까?

일본수군과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 수군은 처참하게 죽어만 갔습니다. 우리 배에 접근만 하면 배에 올라와 일본 칼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배위에 올라다지 못하도록 뚜껑을 씌워서 또 올라오면 꼼짝하지 못하도록 뚜껑을 씌운 곳에 못을 박고 못 박은 것도 잘 나타나지 않도록 위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일본수군이 야간에 쳐 들어올 때 달빛이 비치지 않는 쪽에 우리 수군이 지키고 있었지 하고 달빛이 비치지 않는 쪽으로 침투했다는 것인데 이순신 장군은 그것을 먼저 예측하고 달빛이 비치지 않는 곳을 지켜서 모두 무찌르고 일본수군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거북선농업의 내용을 말씀 드리나면,

현재 우리농업이 그때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생각돼서 소개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지은 것을 없어서 혹은, 모자라서 판매하는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전 세계와 FTA를 맺고 지구 전체가 한나라처럼 모든 관세가 철폐 또는 감소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선처럼 우리 자신을 공고하게 하여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농사를 잘 지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1년도에 서울대학교에 가서 2시간에 걸쳐 나의 농사짓는 방법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 4학년 학생이 메일을 보내왔었는데 그 내용은 “대학 4년 졸업을 앞두고 우리 농업이 희망과 발

전이 없다고 막연히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저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방법으로 노력만 한다면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다”며 희망을 갖고 졸업하게 되어 기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 하면 일류 교수님들께서 일류 학생을 가르치는 곳인데 중학교가 학력의 전부인 제가 2시간 강의를 한 것으로 희망을 갖고 졸업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 뿌듯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인들도 자포자기하듯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만은 아닙니다. 농촌은 더욱 어려워져가고 있고 이미 체결되어 있는 칠레, 미국 등의 나라 외에 전 세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을 가져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농업인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올해 농사를 못 지으면 내년엔 잘 짓지”라고 안

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한해 농사를 지어 2년 농사의 수입을 올려야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농업인들 중 일부는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기후가 변하는데 우리 농업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터전인 농촌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은 바로, 우리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각이 바뀌어서 변화의 바람을 함께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인 스스로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상의 흐름에 발 맞춰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다면 우리 농업은 결코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이 아니란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㉞



▲ 도농녹색교류 국제심포지엄에서 이원희 신지식농업인의 사례발표



▲ 도농녹색교류 국제심포지엄에서 토론 장면